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도서관 관장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Library Director's Perception on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Service

노 영 희(Younghee Noh)*

오 의 경(Euikyung Oh)**

<목 차>

I. 서론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II. 이론적 배경	IV. 설문 분석 결과
1. 공공도서관 주제특성화서비스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2. 특성화서비스 전달사서	2. 특성화서비스와 전달사서 배치 관련 의견
3. 선행연구	3. 전달사서 자격, 수급방법 및 채용에 관한 의견
III. 연구설계 및 방법	V. 논의
1.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절차	VI.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특성화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있다. 69명의 관장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주요 결과로는 특성화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서관 특화서비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지 발전해 나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도서관의 특화서비스 제공과 주제전문사서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자격은 석사 이상의 학력과 4-7년 이상의 해당 업무 경력이 적절하며 국가자격제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서비스는 서비스를 담당할 주제전문사서 양성시스템 정비,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의 확립과 운영, 특성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제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등에 관한 깊은 논의가 향후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특성화, 도서관장의 인식, 주제특화서비스, 특성화 방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by investigating the library specialization and the perception and opinions on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 total of 69 directors have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main result was that while there are difficulties in terms of manpower and budget in providing the specialization services, they have been fully aware of the need and value of the libraries' specialized services and were willing to maintain and develop the services in the future.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and the placement of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t the public libraries are essential. The qualification for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was said to be higher than a master's degree and 4 to 7 years or longer of relevant work experience and must be managed as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that the discussions of the specialization service comprised of the training system for specialized libraria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theme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specialization service, among others.

Keywords: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Library director's perception, Subject librarian, Subject-specialized service, Specialization direction of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상명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hui@s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5월 9일 •최초심사: 2018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51-178,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6.151]

I. 서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천편일률적인 조직의 경영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직체들이 생존하고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타성에서 벗어나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조직경영 전략이 필요한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는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다.

공공도서관도 예외 없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조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특화도서관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도서관 차별화 전략을 도모해 왔다. 당시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에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결핍을 보완하고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 중 일부는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운영되었으나 일부 도서관은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2002년 이후 각 도서관은 구체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특화서비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정보사회의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차별화·전문화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서관의 특성화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과주가람도서관’과 ‘순천시립조례생태도서관’ 등 2개 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8개 도서관을 예비 특화도서관으로 선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거쳐 향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에 있다. 그러므로 각 도서관 특화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는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경쟁 우위의 주제를 발굴하고, 주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원의 집중적인 수집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인 주제전문사서를 선발·배치·교육하여야 하는 등 정책적인 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도서관장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장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데 집중하였다. 더불어 특성화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전담사서들에 대한 조건, 채용 및 역량 등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특성화서비스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현장 사서의 역량과 태도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인 이용자의 요구 등이 함께 조합되어야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본 연구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연구의 일부로 도서관장의 인식과 태도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사서와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현황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설문을 통하여 도서관의 최고 경영자인 도서관장들의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관장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관장도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대한 경영자 입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도서관의 전문서비스와 다른 관종의 전문서비스와의 차별성 또는 보완점을 얻고자 함이다.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사서의 역량과 태도 그리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과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들을 조합하면 공공도서관 특성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 주제특성화서비스

공공도서관의 주제특성화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와 그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의 개념과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공공도서관 주제특성화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가.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개념

공공도서관 특성화에는 도서관서비스의 집중화와 차별화라 두 가지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는 주제에 집중화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 대학도서관은 학문의 주제나 학과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서비스, 리에중서비스, 온라인 주제가이드 배포 등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도서관은 도서관의 모든 업무와 서비스가 전문 영역에 집중화·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서비스라는 명칭 자체가 생소하거나 새롭지 않다. 반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와 제공하는 주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공중을 위한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집중화·차별화 보다는 균형을 이루는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략적으로 집중화와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부각되고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일종의 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특성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송갑순(2004), 이소연(2004), 차연호(2005) 등은 공공도서관 특성화란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한 운영 및 관리를 의미하며, 공공도서관이 각각 특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은자(2005), 박미영(2007), 홍희경(2008) 등은 한 지역 내 여러 공공도서관이 각각 특성화를 이루어 일정한 재정에서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료와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보다 적합한 정보를 얻고,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와 높은 만족을 얻기 위하여 대상과 주제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므로 사서의 입장에서는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 영역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효율과 운영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특성화, 비교 우위의 분야에 대한 더욱 심화되고 세련된 서비스로 공공도서관의 경영과 서비스 모두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나.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의 유형

노영희 등(2017)은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실시되고 있는 특성화서비스의 유형을 대상, 서비스 내용, 특성화 자료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의 특화도서관 혹은 특성화서비스이다. 둘째, 도서관 이용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호대차서비스, 참고서비스, 정보화 등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셋째, 도서관이 비교 우위로 보유하고 있는 특성화 주제를 기반으로 한 자료 중심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로 향토자료, 문학, 역사, 지도, 특허, 행정 등의 분야별 자료 등을 포함한다. 특성화의 주체를 어디에 두는 지에 따른 구분이다. 세 가지 유형이 하나의 도서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한 유형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2.1.3에서 정의하였다.

다. 공공도서관 주제특성화서비스의 개념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집중화와 차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특성화서비스는 이용대상, 서비스, 특성화 주제 등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특화도서관 육성사업’추진에 대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특성화 주제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공공도서관 주제특성화서비스는 ‘비교 우위의 주제에 집중화·차별화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설문 배포 시에도 대상 이용자 중심의 특성화와 서비스 특성화와는 차별됨을 인지하도록 안내하였다.

2.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제특성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서를 ‘전담사서’로 칭하였다. 전담사서는 어떠한 업무나 서비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서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사서 채용 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주제특성화서비스는 주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주제서비스와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와의 관련성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제전문사서를 포함한 유사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담사서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가. 유사 관련 개념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주제전문사서란 ‘주제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주제 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노영희 등(2008) 연구와 황재영(2011)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주제전문사서를 지칭하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립되거나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고, 주제사서, 전문주제사서, 주제서지가, 참고서지가, 서지가, 주제영역전문가,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영역이 넓고 다양하며 도서관마다 규정하는 역할이 다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주제 기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개별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주제전문사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주제전문사서보다 ‘주제사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Martin 1996, 이용재 1998). 이들의 주장은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는 주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이기 때문에 주제사서라는 용어로 그 의미가 충분하며 현실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심원식(2009)은 ‘주제전담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주제전문사서, 주제사서, 학과전담사서 등의 개념이 내용상 상당한 중복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개별 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 운영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주제전담사서가 다른 유사 용어보다 포괄적이며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나.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의 정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제 기반의 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도 담당 사서에 대한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명칭의 사용 자체가 낮설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신뢰성과 조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여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이 공공도서관의 관장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관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제전문사서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공공도서관의 주제 기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담사서’를 사용하였고, 전담사서를 ‘도서관의 주제 기반의 서비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서’로 정의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관 특성화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에 관한 연구이지만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관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관련 연구는 도서관의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 서비스특성화 연구, 도서관 장서 특성화 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서관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에는 조찬식(2008)의 연구와 홍희경(2008)의 연구가 있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도서관 특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도입, 전문화된 인력 채용, 외부기관과 교류, 특성화 전략에 대한 경영 마인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지역적 환경에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제언하였다. 홍희경(2008)은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서관 특성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도서관 특성화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발전 방안으로 적극적인 자료수집, 전담사서의 배치, 재정 확보, 다양한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망 구성, 적극적인 홍보, 지역사회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서비스특성화에 대한 연구에는 차연호(2005)의 연구, 박미영(2007)의 연구, 이수영(2017) 등의 연구가 있다. 차연호(2005)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해외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운영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를 비교·분석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마케팅 도입, 외부 기관과의 협력, 전문인력 채용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특성화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박미영(2007)은 공공도서관의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존의 독서 교육이나 독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공공도서관의 특색에 맞는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전문직 인력 배치,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창의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이수영(2017)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주제 분야 선정, 적극적인 태도의 사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 위치 선정 및 도서관 내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장서특성화에 관한 연구로는 박현주(2012)의 연구, 노영희와 강정아(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서를 특성화 하는 것이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박현주(2012)는 인천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 특성화 사례 연구에서, 2000년 문화관광부의 특화도서관(개항문화자료관) 사업 지정 이후 지역발간 자료의 집중 수거, 개인 소장가 대상 기증 유도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 노력, 향토개항문화자료관 자문위원회의 자료 선정 및 심의 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었고, 더불어 자료보존, 자료발간, 향토역사교육, 온라인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분류, 보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보존·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타당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유도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는 각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대한 주제전문서비스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에는 교육인적자원부(2002) 공청회의 제안, 김선애(2004)의 연구, 노영희(2006)의 연구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2)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대학별 지식정보자료 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학별로 지식정보자료의 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역할분담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세계여성문학관을 성공사례로 제시하여 대학별로 특성화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선애(2004)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실시·운영되고 있는 CADIST의 도입 배경, 역할, 운영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해 학술정보의 망라적

수집 및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에 있으며, 이는 전문화·세분화한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 대학 다양화·특성화·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노영희(2006)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체계 모형을 제안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망을 이용하는 방법, 주제 또는 지역별로 형성된 각종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의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도서관 특성화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볼 때, 도서관의 특성화 관련 서비스와 장서의 특성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들은 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었다. 특성화는 조직의 전략으로서 관장들의 입장, 견해, 인식, 태도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도서관장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관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관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앞서 밝혔듯이 경영자 입장의 다양한 의견과 관종별 전문서비스에 대한 차별점과 보완점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대상자의 표집은 공공도서관 60명(60%), 대학도서관 30명(30%), 전문도서관 10명(10%)으로 총 100명을 목표로 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주소록을 확보하였으며, 설문대상은 확보한 주소록을 토대로 각 관종별로 계통 표집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978개관의 주소록을 확보하였으며, 15개의 도서관을 간격으로 260개의 공공도서관에 전화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4년제 대학교인 220개의 주소록을 확보하였으며, 7개의 도서관을 간격으로 30개의 대학도서관에 전화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602개관의 주소록을 확보하였으며, 60개의 도서관을 간격으로 10개의 전문도서관에 전화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 관장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순이며, 총 69명이 응답하여

설문의 회수율은 69%이다.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는 관종별로 관장들의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표본의 수와 회수율에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종별 관장들의 의견에 대한 차이 분석은 실시하기 어려웠다.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특화서비스 및 특화담당 전문사서 배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특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응답자의 인적사항,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에 대한 의견 문항, 그리고 전담사서 자격, 양성 및 채용에 대한 의견 문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내용 및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문항 수
인적사항	① 성별 ② 연령 ③ 최종학력 ④ 근무 도서관종 ⑤ 재직 ⑥ 도서관의 위치 ⑦ 관장으로 근무한 기간	7
특성화 서비스 및 전담사서 관련	①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 ② 전담사서 배치 여부 ③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④ 특성화서비스 제공 이유 ⑤ 특성화서비스의 유지, 확장, 지속에 대한 의사 ⑥ 특성화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⑦ 향후 특성화서비스 제공 의사 ⑧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제공 필요성 여부 ⑨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특성화 주제 ⑩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불필요 이유(필요성이 없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⑪ 공공도서관의 전담사서 배치 필요성 ⑫ 공공도서관의 전담사서 배치 불필요 이유(필요성이 없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⑬ 적합한 특성화서비스 담당 인력	13
전담사서 자격, 수급 방법 및 채용 관련	① 전담사서 자격제도의 필요성 여부 ② 전담사서로 인정 가능한 도서관 근무 경력 ③ 전담사서로 인정 가능한 전담사서 경력 정도 ④ 전담사서의 적절한 학력 수준 ⑤ 현직 사서의 전담사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⑥ 전담사서 자격제도 불필요 이유(필요성이 없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⑦ 전담사서 자격 관리 방식 ⑧ 전담사서 역량 구비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방식 ⑨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⑩ 전담사서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육 내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교육 내용 ⑪ 전담사서 채용 의사 여부 ⑫ 전담사서 채용 의사가 없는 이유(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⑬ (관리자 입장에서) 전담사서 채용 시 필요한 역량 ⑭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	14
총 문항 수		36

IV. 설문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설문에 응답한 69명 관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38명(55.07%), 여자 31명(44.93%)이며, 연령별로는 55~59세가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54세 24.64%, 45~49세 15.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학사과정 졸업이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사과정 졸업 23.19%, 석사과정 졸업 20.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관종은 공공도서관 75.36%, 대학도서관 20.29%, 전문도서관 4.35% 순이며, 또한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3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14.49%, 대구광역시 8.70%,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5.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있어서는 현재 직장에서의 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이상~4년 미만이 43.48%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7.54%, 10년 이상 14.49% 등의 순이며,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모두 포함한 관장으로의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7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11.59%, 10년 이상~15년 미만 7.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특성화서비스와 전담사서 배치 관련 의견

특성화서비스와 전담사서 배치 현황 및 의견에 관한 문항은 총 13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여부, 특성화서비스 담당 전담사서 배치 여부, 서비스 제공 시 수반되는 어려움, 제공 효과 등이다.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서와 이용자의 의견이 함께 고려되어야 신뢰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보는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한정된 결과를 분석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

가.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전담사서 배치 여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응답은 '제공한다' 34.78%(24명), '제공하고 있지 않다' 65.22%(45명)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34.61%(18명),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28.57%(4명), 전문도서관 응답자의 66.66%(2명)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대체로 특화서비스 제공은 저조한 편이며, 전문도서관은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가 특정 주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보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담사서 배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담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33.33%,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66.67%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도서관에서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하는 사서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이 각각 2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부족’ 18.87%, ‘주제전문지식의 부족’ 1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54회 응답 중 예산부족이 13회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력부족, 공간부족, 주제전문지식의 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8회 응답 중 인력부족이 3회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예산부족이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전문도서관의 경우는 8회의 응답 중 주제전문지식의 부족 2회, 인력부족 2회, 이용자의 인지도 미약 2회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예산부족, 대학도서관은 인력부족을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답하여 어려움의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고, 전문도서관은 주제전문지식의 부족과 이용자의 인지도 미약을 어려움으로 제시한 점에서 다른 관종과 차별된다.

<표 2>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복수응답) (N=24)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어려움 없음	2	0	0	2	2.86
주제전문지식의 부족	8	1	2	11	15.71
인력부족	11	3	2	16	22.86
이용자의 인지도 미약	3	1	2	6	8.57
예산부족	13	2	1	16	22.86
장서부족	5	0	0	5	7.14
공간부족	11	1	1	13	18.57
기타	1	0	0	1	1.43
계	54	8	8	70	100.00

다. 특성화서비스 제공 이유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하게 된 이유는 <표 3>의 분석 결과와 같이, ‘도서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이 3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 정보요구, 참고질문 유형 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는 의견

이 27.50%,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였다’는 의견이 1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 특성화 정책’, ‘관련단체의 서비스 협조요청’, ‘건립목적’, ‘서울시교육청 사업’ 등의 이유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 분석에서도 응답자들은 ‘도서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3〉 특성화서비스 제공 이유 (복수응답) (N=24)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도서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였다	15	37.50
이용자 정보요구, 참고질문 유형 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11	27.50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였다	6	15.00
기타	5	12.50
장서, 서비스 노하우, 인력 여건이 타 도서관에 비해 우위에 있어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3	7.50
계	40	100.00

라. 향후 특성화서비스의 유지, 확장, 지속 의지

현재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관장들을 대상으로 향후 특성화서비스를 유지, 확장, 지속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응답자의 95.83%가 유지, 확장, 지속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성화서비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한 공공도서관 응답자 18명 모두 ‘의사가 있다’, ‘매우 높은 의사가 있다’로 답하였고,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을 때 4.29점으로 특성화서비스의 유지, 확장, 지속에 대한 의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도 5점 만점의 측정에서 각각 4.30점, 전문도서관 5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유지, 확장, 지속 의사 정도 (N=24)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전혀 의사가 없다	0	0.00
의사가 없다	1	4.17
보통이다	0	0.00
의사가 있다	14	58.33
매우 의사가 높다	9	37.50
계	24	100.00

마.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현재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관장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2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부족'과 '공간부족'의 이유가 각각 19.17%, '장서 부족' 1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어려움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려면 인력, 예산, 공간에 대한 지원과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5>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N=45)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이용자 인식 부족	13	10.83
사서 의지 부족	6	5.00
적합한 인력 부족	35	29.17
예산 부족	23	19.17
장서 부족	19	15.83
공간 부족	23	19.17
기타	1	0.83
계	120	100.00

바. 서비스 미제공 기관의 향후 서비스 제공 의사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관장들을 대상으로 향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실시 의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있다'가 42.23%, '의사가 없다'가 20.00%로 나타나, 앞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인력, 예산, 공간 등에 대한 지원이 실현된다면 서비스의 수행 의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제공 필요성 및 유용할 주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제공해야한다'가 52.17%,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47.83%로 나타났다.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36명의 관장들을 대상으로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유용할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가 2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17.43%, '문학' 14.68%, '여행(관광)' 10.09%, '건강' 9.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특성화서비스 주제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타 주제로는 경제, 재테크 등이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교적 보편적인 주제,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주제, 그리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가 유용한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 6〉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유용한 주제 (복수응답) (N=36)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역사	25	22.94
예술	19	17.43
문학	16	14.68
건강	10	9.17
과학	8	7.34
환경	8	7.34
종교	2	1.83
복지	5	4.59
여행(관광)	11	10.09
기타	5	4.59
계	109	100.00

아.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가 불필요한 이유

공공도서관에서 특성화서비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23명의 관장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표 7>과 같이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서비스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가 4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19%,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특성화서비스 전담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가 22.64%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으로, 가시적으로 특성화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기본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7〉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N=23)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	30.19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22.64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4	45.28
기타	1	1.89
계	53	100.00

자. 공공도서관의 전담사서 배치 필요성 및 배치 불필요 이유

공공도서관이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할 주제전문사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6.52%(38명),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이 43.48%(31명)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 배치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이 강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공도서관에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31명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특성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현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각각 32.73%로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주제전문사서 배치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N=31)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	32.73
현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18	32.73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2	21.82
현재 사서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6	10.91
기타	1	1.82
계	55	100.00

차. 특성화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공공도서관에 전담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관장 38명을 대상으로 특성화서비스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사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5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관련 전문가(주제분야 전공자)’ 38.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특성화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N=38)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사서	22	56.41
주제관련 전문가(주제분야 전공자)	15	38.46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1	2.56
누구나 가능하다	1	2.56
기타	0	0.00
계	39	100.00

3. 전담사서 자격, 수급방법 및 채용에 관한 의견

관장을 대상으로 전담사서의 자격, 수급방법, 채용 등에 관한 문항은 총 14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전담사서의 자격요건의 필요 여부, 전담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경력 및 해당 근무 경력, 전담사서의 학력 수준, 전담사서 자격 관리 방식,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 채용 의사 등이다.

가. 전담사서 자격제도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근무경력과 학력)

전담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 71.01%(49명), '필요하지 않다' 28.99%(20명)로, 대부분의 관장들은 전담사서의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전담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4년 이상 ~ 7년 미만'의 경력이 3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년 이상 ~ 10년 미만'과 '10년 이상 ~ 13년 미만'이 각각 20.41%, '1년 이상 ~ 4년 미만' 1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담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근무경력 (N=4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상관없다	2	4.08
1년 미만	1	2.04
1년 이상 ~ 4년 미만	6	12.24
4년 이상 ~ 7년 미만	19	38.78
7년 이상 ~ 10년 미만	10	20.41
10년 이상 ~ 13년 미만	10	20.41
13년 이상 ~ 16년 미만	0	0.00
16년 이상 ~ 19년 미만	1	2.04
19년 이상	0	0.00
계	49	100.00

전담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전담 업무의 수행경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4년 이상 ~ 7년 미만'의 수행경력이 4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 4년 미만'과 '7년 이상 ~ 10년 미만'이 각각 18.37%, '10년 이상 ~ 13년 미만'이 10.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 수행경력 (N=4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상관없다	3	6.12
1년 미만	1	2.04
1년 이상 ~ 4년 미만	9	18.37
4년 이상 ~ 7년 미만	22	44.90
7년 이상 ~ 10년 미만	9	18.37
10년 이상 ~ 13년 미만	5	10.20
13년 이상 ~ 16년 미만	0	0.00
16년 이상 ~ 19년 미만	0	0.00
19년 이상	0	0.00
계	49	100.00

전담사서의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표 12>에 요약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학사(복수전공 포함)’가 3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석사 이상’ 24.49%,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18.3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헌정보학과 주제 분야의 학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주제 분야의 전문성을 학사 수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전담사서 학력 수준 (N=4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9	18.37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학사(복수전공 포함)	16	32.65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석사 이상	12	24.49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 + 해당 주제 학사 이상	6	12.24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 + 해당 주제 석사 이상	3	6.12
기타	3	6.12
계	49	100.00

나. 현직 사서에게 전담사서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현직 사서에게 전담사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특성화서비스 경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4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 + 학위 취득 모두 필요’ 32.65%, 해당 주제에 대한 학위 취득 18.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위와 경력 모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나 학위 보다는 경력이 자격요건으로 우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표 13〉 현직 사서에겐 전담사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N=4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 인정	22	44.90
해당 주제에 대한 학위 취득	9	18.37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 + 학위취득 모두 필요	16	32.65
기타	2	4.08
계	49	100.00

다. 전담사서 자격제도 불필요 이유

전담사서의 자격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관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여 <표 14>와 같은 응답을 얻었다. ‘현재의 조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험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각각 3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16.00%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공공도서관 경우 특정주제사서의 활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 요구에 응하는 충분한 전문서비스는 불가하다’, ‘외부인(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의 시각에서 전담사서는 의미 없는 존재이고 더구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전담사서 자격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한 관장들은 현재의 사서들이 갖춘 자격과 역량이 특성화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사회적 인정도가 낮기 때문에 자격제도가 마련된다 하여도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자격제도가 조직 내 승진이나 연봉협상의 근거가 되거나 도서관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하여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배타성을 인정해 주는 등의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전담사서 자격제도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N=20)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	16.00
현재의 조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9	36.00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험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9	36.00
기타	3	12.00
계	25	100.00

라. 전담사서 자격 관리 방식

전담사서의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표 15>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46.38%로 가장 높게 나

<표 15> 전담사서의 자격 관리 방식 (N=6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국가공인자격제도 - 주기적인 자격 심사	15	21.74
국가공인자격제도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32	46.38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 설정 - 주기적인 자격 심사 실시	4	5.80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 설정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9	13.04
민간자격제도 - 주기적인 자격 심사 실시	1	1.45
민간자격제도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4	5.80
기타	4	5.80
계	69	100.00

타났으며,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주기적인 자격 심사 방식’ 21.74%,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안’1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 전문사서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사회적인 인정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기적인 자격심사보다는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전담사서 역량 구비를 위한 교육방식

전담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방식의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5점 척도로 ‘전혀 필요없다’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16>과 같이 ‘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에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답한 관장은 52%에 해당하며, 필요한 정도는 5점 만점에 3.78점으로

<표 16> 전담의 역량 구비를 위한 교육 방식 (N=69)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2	2.90	7	10.15	8	11.59	39	56.52	13	18.84	3.78	0.968
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3	4.35	7	10.15	17	24.64	36	52.17	6	8.70	3.51	0.949
특정주제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2	2.90	11	15.94	15	21.74	31	44.93	10	14.49	3.52	1.023
계학 중 관련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2	2.90	6	8.70	17	24.64	38	55.07	6	8.70	3.58	0.881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2	2.90	6	8.70	15	21.74	40	57.97	6	8.70	3.61	0.878

나타났다.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3.61점, ‘재학 중 관련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3.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모든 교육 예시에서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과 필요성 정도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각 역량별로 필요한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도서관 관장이 생각하는 전담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하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구성과 현장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이 될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17>과 같이 ‘해당 주제분야 지식’이 4.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정보원 이해’ 4.30점, ‘정보활용기술’ 4.25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4.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각 관종별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결과는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선 순위의 역량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주제분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제도와 학사 제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사서 재교육에서도 주제분야 지식에 입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과 필요성의 정도 (N=69)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도서관 업무 기술	0	0.00	0	0.00	7	10.15	41	59.42	21	30.44	4.20	0.608
해당 주제분야 지식	0	0.00	0	0.00	1	1.45	25	36.23	43	62.32	4.61	0.521
커뮤니케이션 기술	0	0.00	0	0.00	5	7.25	44	63.77	20	28.99	4.22	0.565
언어 능력	0	0.00	0	0.00	11	15.94	37	53.62	21	30.44	4.15	0.670
정보활용기술	0	0.00	0	0.00	5	7.25	42	60.87	22	31.88	4.25	0.579
정보원 이해	0	0.00	0	0.00	4	5.80	40	57.97	25	36.23	4.30	0.577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0	0.00	1	1.45	13	18.84	37	53.62	18	26.09	4.04	0.716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0	0.00	1	1.45	13	18.84	42	60.87	13	18.84	3.97	0.664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0	0.00	0	0.00	9	13.04	37	53.62	23	33.33	4.20	0.655

사. 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교육

전담사서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이 ‘주제별 전담사서 관련 교육’이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와 정보원 교육’ 4.10점,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4.03점, ‘정보기술 관련 교육’ 3.9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되거나 강화되기를 바란다

는 것은 현재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주제별 전담사서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관장들이 현재의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특성화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시 참조할 수 있다.

<표 18> 전담사서 양성을 위하여 추가 및 강화되어야 하는 내용과 그 필요성 정도 (N=69)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문헌정보 시스템운영 교육	0	0.00	2	2.90	21	30.44	38	55.07	8	11.59	3.75	0.695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	0	0.00	2	2.90	8	11.59	33	47.83	26	37.68	4.20	0.759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0	0.00	1	1.45	9	13.04	46	66.67	13	18.84	4.03	0.618
정보기술 관련 교육	0	0.00	3	4.35	10	14.49	41	59.42	15	21.74	3.99	0.737
정보와 정보원	0	0.00	1	1.45	11	15.94	37	53.62	20	28.99	4.10	0.710
도서관 홍보·기획·마케팅·평가	0	0.00	1	1.45	16	23.19	43	62.32	9	13.04	3.87	0.640

아. 전담사서 채용 의사 여부 및 이유

도서관 관리자의 입장에서 향후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30.44%(21명),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33.34%(23명), 잘 모르겠다(보통이다)는 경우 36.23%(25명)으로 나타났다. 채용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보인 23명의 그러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3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사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24.39%, ‘현재 인력이 업무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이 19.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전담사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과 ‘현재 전문사서 채용보다는 사서채용이 우선적이고, 처우개선

<표 19> 전담사서 채용 의사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14	34.15
현재 인력이 업무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8	19.51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많지 않아서	7	17.07
전담사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 어려워서	10	24.39
기타	2	4.88
계	41	100.00

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결과는 전담사서의 채용에 대한 논의 전에 선제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확보, 전담사서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 전담사서 채용 시 필요한 역량과 필요성 정도

전담사서 채용 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채용 시 우선이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표 20>과 같이 제시된 모든 역량에 대하여 높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제분야 지식’의 경우 필요성의 정도에서 5점 만점에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이해’ 4.25점, ‘데이터큐레이팅 능력’ 4.23점, ‘정보활용기술’ 4.20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4.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운영인력이 부족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운영인력 역할도 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전담사서의 채용이 본격화되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큰 역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채용 조건을 마련하는 지침을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담사서의 필요 역량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역량에 관한 문항들의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관장들은 일관성있게 주제전문성 역량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전문성의 정의와 주제전문성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교육내용 및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20> 전담사서 채용시 필요한 역량과 필요성 정도 (N=69)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도서관 업무 기술	0	0.00	1	1.45	12	17.39	41	59.42	15	21.74	4.01	0.675
해당 주제분야 지식	0	0.00	0	0.00	0	0.00	25	36.23	44	63.77	4.64	0.484
커뮤니케이션 기술	0	0.00	0	0.00	9	13.04	38	55.07	22	31.88	4.19	0.648
언어 능력	0	0.00	0	0.00	11	15.94	41	59.42	17	24.64	4.09	0.636
정보활용기술	0	0.00	0	0.00	7	10.15	41	59.42	21	30.44	4.20	0.608
정보원 이해	0	0.00	1	1.45	5	7.25	39	56.52	24	34.78	4.25	0.651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0	0.00	1	1.45	10	14.49	40	57.97	18	26.09	4.09	0.680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0	0.00	1	1.45	10	14.49	44	63.77	14	20.29	4.03	0.641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0	0.00	0	0.00	7	10.15	39	56.52	23	33.33	4.23	0.622

차.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특성화도서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표 21>과 같이 5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14.49%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장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준이 되는 제도화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연구와 논의는 많았지만 제도적으로 확립된 바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1〉 주제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등 필요 여부 (N=69)

항목	응답 수 (명)	응답 비율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2.90	3.51	0.918
필요하지 않다	8	11.59		
보통이다	18	26.09		
필요하다	35	50.73		
매우 필요하다	6	8.70		
계	69	100.00		

V. 논의

특화서비스를 공공도서관에 도입하게 된다면 경영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관장의 의지와 생각은 매우 중요한 도입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여부, 특성화서비스 담당 전담사서 배치 여부, 서비스 제공 시 수반되는 어려움, 제공 효과 등을 포함하여 전담사서의 자격, 수급방법, 채용 등에 관한 문항은 총 14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전담사서의 자격요건의 필요 여부, 전담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경력 및 해당 근무 경력, 전담사서의 학력 수준, 전담사서 자격 관리 방식, 전담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 채용 의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공공도서관이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거나 개별 공공도서관이 특성화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논의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제적 조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용자 요구 분석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존재 가치는 이용자 만족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는 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의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분석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의 이용자의 상황도 유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회성 요구 조사가 아닌 특성화서비스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용자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 분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용자 분석은 특성화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 분석은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 요구에 대한 당위성과 근거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성화서비스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다. 사서의 주제 전문성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취업 후 현장에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성의 영역은 결국 그 주제의 전문가 집단과 그에 속한 전문가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고 분야의 동향을 읽어냄으로서 확립될 수 있다. 학부에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하고, 취업 후 재교육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제의 전문가집단과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전문가 집단과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서의 영역은 정보서비스에서 있어서 가장 주도적 위치이며 사서가 주도하는 서비스 틀 안에서 전문성을 덧씌우는 방식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만, 반대로 전문집단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의 기술적 요인들로 특성화서비스의 요체를 만드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특성화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조직 내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공식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전담사서 배치 및 채용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결국 담당 인력에게 돌아오는 인정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성은 사회적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인정을 보장해 줄 보상과 처우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승진의 기준, 연봉 협상의 근거,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성 보장 등 다각도로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인제도로 사회적 인정 부분을 메운다고 한다면, 기존의 존재하는 사서자격제도와와의 균형의 문제, 즉 별도의 새로운 제도로 인정할 것인지, 기존 자격제도를 재편하여 제도화할 것인지, 학력과 경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조합할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관 관장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및 전담사서에 대한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이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제전담사서를 배치하는 있는 도서관의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향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서 채용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편이다.

둘째,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도서관장들은 이용자들이 자관의 특성화서비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전담사서 배치, 전담사서 자격제도 도입 등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서비스 제공이나 전담사서 배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력 수급, 예산 확보, 사회적 인정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사서 채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담사서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은 특성화 주제 분야에 대한 지식이었고, 채용 시 필요한 역량, 대학 내에서 강화되어야 할 역량도 모두 주제분야의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영자의 시각에서 도서관 특성화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전담사서의 자격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학력과 경력을 자격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석사 이상 그리고 문헌정보학 이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는 즉, 이중 학위 취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력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 수행 경력 4년~7년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경영자인 도서관장의 도서관특성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담사서의 자격과 배치 및 채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고, 향후 사서, 이용자의 의견 조사 등을 추가하여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내는 후속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일부의 연구였다. 연구의 설계와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다양한 경영자 입장에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이외에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관장에게도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의도한 대로 설문이 회수 되지 않아서 의도대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였고, 관종 간의 전문성에 대한 차별점과 보완점 등을 통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의 목적에서도 밝혔으나, 도서관의 서비스는 관장, 사서, 이용자 즉, 경영자, 서비스의 제공자, 서비스의 대상자 측면에서 의견 조사가 이루어져야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결과로 논의점과 시사점 더 나아가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경영자 측면만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혼란을 주거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미혜. 1999.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 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1): 129-144.
- 강미혜. 200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방안 연구-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49-68.
- 김세훈. 2004. 도서관 전문성 강화방안 :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노영희.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1-271.

- 노영희. 2009. 대학도서관의 규모별 주제전문사서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01-117.
- 노영희. 2008.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97-123.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15-339.
- 박운자. 2005.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5-33.
- 박현주. 2012.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연구: 인천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47.
- 반달림, 오동근. 2015.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1-181.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송갑순. 2004.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에 대한 연구: 교육청 소관 1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3-43.
- 이수영. 2017.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품질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서비스전공.
- 이용재. 1998.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9: 273-311.
-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차연호. 2005. 『공공도서관 서비스 특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 홍희경. 2008. 『도서관 특성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 6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 황재영. 2011.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과 사서의 인식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137-158.
- Martin, J. V. 1996.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59-16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Mia-Hye. 1999. "A comparative study on a general culture concerning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129-144.
- Kang, Mia-Hye. 2002.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bibliography course for the education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49-68.
- Kim, Se-hoon. 2004. *Strengthening Library Expertise: Focusing on Librarian Expertise*. Seoul: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 Noh, Younghee, Youngi Shin, Woojung Kwak. 2017. "A study on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s in library spe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0): 241-271.
- Noh, Younghee. 2009. "A study on how to introduce subject-oriented service to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ir siz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01-117.
- Noh, Younghee, Dong-Jo Noh, In-Ja Ahn, Sung-Jin Kim. 2008. "An Analysis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97-123.
- Noh, Younghee & Kang, Jung-Ah. 2014.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67-93.
- Park, Mi-Young.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Park, On-za. 2005.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 for young adults: in the cases of U.S.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5-33.
- Park, Hyun-ju. 2012. "A case study on the characterization of public libraries collection." *2015 Proceedings of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47.
- Ban, Dal-Rim & Oh, Dong-Geun. 2015.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pecial

- collection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daegu metropolitan city.” *2015 Proceedings of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71–181.
-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Song, Gab–Soon. 2004.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project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11 public librar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Doctoral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Lee, Soyeon. 2004. “Strategies for improving 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3–43.
- Lee, Su–Young. 2017. *A Study on quality analysis of specialize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era.
- Lee, Yong–Jae. 1998. “Introducing the subject librarian system in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in their present developmental st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 273–311.
- Jeong, Dong–Yeol (2002).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5–23.
- Cha, Yeon–Ho. 2005. *A Study on the Characteriza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M.A.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159–178.
- Hong, Hee Kyu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Plans of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u, Korea.
- Hwang, Jae–Young. 2011. “An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and perception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137–158.